

## ‘민선8기’ 광주·전남 발전 청사진 속도 낸다

강기정, 광주시대 준비위 출범식  
6개 분과 2개 TF팀 현안 논의  
김영록, 비전·공약 위원회 운영  
공약 실천방안 등 종합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8기 밑그림을 그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속도를 낸다. ▶관련기사 3면

초선인 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선인 김 당선인은 비전·공약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4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김준하(GIST 교수) 위원장과 임선숙(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4년간 광주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총괄분과 ▲미래 주도 산업·창업·경제 ▲산중일 돌봄·교육·건강 ▲회복탄력도시·안전·교통 ▲일상관광·문화·



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김준하 인수위원장, 임선숙 부위원장 등이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체육 ▲공공혁신 ESG 분과 등 6개 팀을 비롯, 위원회와는 별도로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TF ▲국비대응 TF 등 2개 팀으로 꾸려졌다.

현안대책 TF는 임선숙 부위원장이, 국비대응 TF는 김광진 전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전

국회의원)이 각각 맡았다. 강기정 당선인은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당당하고 빠른 시정 변화발전에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정부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회와 다

른 지자체와의 협력, 광주와 전남·북 초광역협력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지자체와의 균형정책 방안 등에 대해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와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 8기 비전·공약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전·공약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현장에서 도민이 들려준 소중한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기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실천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꼭 추진해야 할 사업도 충분히 논의해 정책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안전·환경·복지 ▲일자리·산업·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4개 분과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학계,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분과별로 전남도 실·국장과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게 된다.

또한 현장 토론회를 전남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광주 근교권, 4개 권역별로 개최해 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 결과를 종합·정리해 ‘민선8기 비전·공약·정책과제 대도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비전·공약위원회가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민간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등 매진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대도와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로, 전남이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 광주·전남 화물연대 총파업...노동자 5,500명 동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촉구  
장기화면 물류 대란 ‘초비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화물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관련기사 7면

광주 화물연대와 전남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로와 광양시 광양항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2,000여명, 전남 3,500

여명 이상의 화물노동자들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광주 화물연대는 조합원 500여 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가운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정식에서 “화물노동자의 목숨보다 한 두 푼의 물류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본을 향해, 화물노동자 절규에 눈과 귀를 막은 정부를 향해 투쟁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고 모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화물노동자는 배랑 끝에 놓여있다”며 “그동안 투쟁으로 화물 운송시장을 바꾼 안전운임제를 만들었지만 제도는 제한적이고 일몰 기한마저 닳쳐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을 마친 광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광산구 진곡에 위치한 광주화물연대 사무실까지 2.4km 구간을 행진했다.

총파업으로 당장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기화할 경우 물류는 물론 공장 생산 라인까지 멈출 수 있어 당국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

##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총리 보좌·정책조정 역할  
기재부 제2차관 등 역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사진)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행정고시(28회) 출신 경제 관료인 방 신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기재부 산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해 왔다. 방 신임 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수혜 전 쿠팡 홍보총괄 전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면 인삼 시효인 CK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0.2%, 주름 25.9% 인위적용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결과) (대상: 30~49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